

## 새내기 낙농인, '목장경영학'을 만나다



정진철

경기 평택 대지목장

필자는 일반대학 졸업 후 약 7여 년간의 직장생활을 거치고 낙농업에 뛰어든 늦깎이 후계 낙농인이다. 부모님께서도 30여년이상 낙농업에 종사하셨고, 본인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일을 돕다 보니 낙농업에 관하여 익숙한 점도 많았다. 언젠가는 가업을 물려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여타의 상황에 의하여, 다른 이들보다 조금은 늦게 낙농업에 입문하게 되었다.

우리 목장은 '12년도를 기점으로 축사를 신축·이전하면서 규모를 확장, 현재 착유우 50두 내외 일평균 1.5톤을 납유하고 있다. 목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아버님께서 운영해오시던 방법에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후계농업경영인(영농후계자)사업자금 지원을 알아보던 중 협회에서 낙농후계자를 위한 교육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주저 없이 교육신청을 하게 됐다.

사실 처음에는 교육내용 보다도 영농후계자 선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지만 교육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교육에 참가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나현재 대표님의 낙농 경영학을 수강하면서, 현재 우리 목장의 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됐다.

현재 우리목장은 착유우 대비 육성우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막연하게 사육

비가 많이 들겠다는 생각만 하다가,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구체적으로 손실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는 산출할 수 있게 되었고, 수익성 하락이 눈에 보이다 보니,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다. 또한, 우유 1ℓ 당 생산비 산출의 근거를 알게 되니, 낙농업이 예전처럼 착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영이라는 학문을 필히 접목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질병관리 시간에는 직접 접해보지 못한 질병에 관한 설명과 그 피해에 관하여, 그리고 참가한 교육생의 경험담이 더해져서 그 심각성이 좀 더 확연하게 느껴졌다. 우리목장의 방역 및 질병의 차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심리역할극 시간에는 부모세대와 후계자 사이에서의 어떠한 갈등들이 있는지, 내가 겪는 갈등과 다른 사람들이 겪는 갈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역할교환을 통해 부모님 세대의 역경을 짐작하게 되면서 부모님 세대를 한층 더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시간 및 거리의 여건으로 둘러보지 못하는 여러 목장들의 환경을 측사 환경개선 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터인데 강사님의 사례집을 보고 여러 목장의 환경을 단시간 내에 확인하면서 우리목장에 부족한 시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교육을 받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교육이 흑서기에 진행되어 목장을 비우기가 부담스러운 교육생의 참여가 저조했던 점과 새내기 후계 낙농인에게 필요한 사양관리 교육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다.

필자에게 꼭 필요한 공부를 하다 보니 학창시절 보다 더 집중하게 된 2박3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에 아쉬움도 생긴다. 한 번의 교육으로 목장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쌓여 목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회계원리를 접목하여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간다면 먼 훗날 나의 자식에게 자랑스럽게 목장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 한다. ㉞

